

문재인 TK 제외 전지역 선두...광주·전남서 가장 높은 지지

5자 대결 지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판이 ‘양강(兩強)’에서 ‘1강(強)-2중(中)’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선거전 초·중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10%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가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도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1%,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4.9%,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8.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5.1%였고, 무응답층도 10.6%를 기록하는 등 부동층이 15.7% 수준에 달하면서 향후 부동층의 향배도 주목된다.

문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안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면서 1강 체제를 구축했다.

문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후보는 30대(54.2%)와 40대(51.2%)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19~29세(38.5%)와 50대(33.5%)에서도 30%대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17.2%의 지지율에 그치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31.7%)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4.9%)에게

2·3위 후보에 2배 높아

사실상 독주 체제

안철수 60대 이상서 文 앞서

15.7% 부동층 향배 주목

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0대(24.3%)와 60세 이상(24.9%)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에서는 민주당 문 후보에게, 60세 이상에서는 자유한국당 홍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48.3%와 51.6%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을 국민의당에게 빼앗겼던 패배의 경험을 삼아 공식 선거운동기간 총력전을 펼치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왔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과 경남에서도 각각 40.3%, 37.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수정당의 심장인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6.4%, 33.2%로 선두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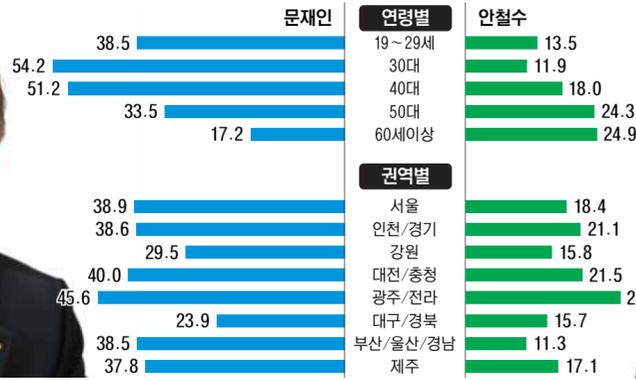


하지만, 대구에서는 민주당 문 후보가 25.7%의 지지율로 홍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내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각 26.1%, 29.5%, 28.6%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지지율이 크게 밀린 수치다.

선거 초반 우위를 보였던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14.4%, 17.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한국당 홍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에게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령·지역별 문재인·안철수 지지율 (단위:%)



문재인 압도적 1위...안철수·홍준표 5.6% 그쳐

후보별 당선 가능성

오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5.7%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5.6%에 그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0.3%와 0.2%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인 60대 이상에서도 38.5%를 기록하며, 한국당 홍준표(12.0%) 후보를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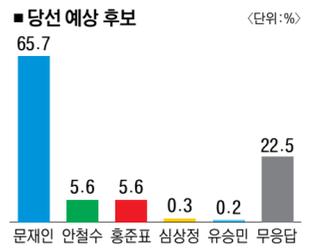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연령대는 30대(83.3%)와 40대(79.6%)였다. 19~29세에서도 응답자의 74.5%가 당선 가능성을 접했고, 50대도

60대 이상도 文 38%

광주 75.2%로 가장 높아

61.0%가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75.2%로 가장 높게 예상했고, 이어 인천(72.2%)·서울(70.6%)·전북(69.5%)·충북과 경기(67.5%)·대전(66.8%)·전남(65.6%) 순이었다. 호남과 충청, 서울·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7명은 문 후보의 당선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문 후보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당선 가능성은 각각 57.7%, 48.6%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정당 텃밭이었던 부산과 경남 유권자들도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66.1%와 56.8%로 전



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북에서만 11.4%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구와 경남에서 각각 10.4%, 10.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지지도 민주당 46.0% > 국민의당 25.9%

정당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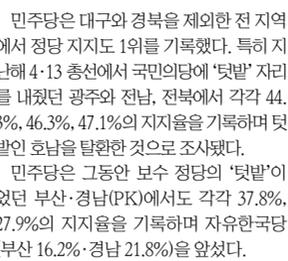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 1위를 독주했다. 하지만 5·9대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35.6%로 가장 높은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13.7%를 기록하며 정당 지지도 2위를 달렸지만, 자유한국당이 13.0%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 7.1%, 바른정당 5.8%, 새누리당 1.2%, 기타 정당 0.4% 순이었으며, 무응답은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각 정당이 대선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눈여겨보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텃밭’ 자리를 내줬던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각 44.3%, 46.3%, 47.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텃밭인 호남을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PK)에서도 각각 37.8%, 27.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자유한국당(부산 16.2%·경남 21.8%)을 앞섰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대다수를 보유한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도 민주당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2위로 밀려났다. 국민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광주 27.2%, 전남 27.7%, 전북 23.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7.5%, 25.7%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지지율(대구 24.7%·경북 23.9%)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보수정당의 ‘텃밭’임을 과시했다. 세대별 정당 지지도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1위를 달렸고, 60대 이상에선 한국당(27.9%) 국민의당(18.3%) 민주당(18.0%)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33.2%가 자유한국당을, 진보층 57.6%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중도층 20.2%의 지지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중도층 지지는 35.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심상정 24.4% 1위...안철수·유승민·문재인·홍준표 順

차선 후보 지지도

제19대 대선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다음으로 좋아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4.4%로 가장 높은 차선(次善) 지지 후보로 꼽혔다.

이어 안철수 후보 17.2%, 유승민 후보 12.1%, 문재인 후보 9.9%, 홍준표 후보 4.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5.3%)와 40대(33.5%)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차선 후보로 가장 많이 꼽았고, 60세 이상에서는 21.7%가 안철수 후보를 차선으로 선택했다.

30~40대 젊은층 심상정

60세 이상 안철수 많이 꼽아

지지후보별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율 가운데 44.2%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차선 후보로 꼽았고, 19.8%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라고 응답했다.

심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지지층 중 18.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가운데 14.4%에서도 차선 후보로 선택을 받았다. 이는 심 후보가 그동안의 TV토론회에서 가장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서 지지율 상승과 함께 차선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들의 지지층으로부터 차선 지지 후보로 꼽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층 중 각각 31.9%와 30.9%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차선 후보로 꼽았다.

이는 중도 보수층 상당수가 여전히 안철수 후보를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forest.go.kr

산림을 지키는 산림청은 항상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불합리한 산림규제 귀 기울여 개혁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1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 2017년에는 더욱 좋아집니다!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월지급액 증가

www.fplove.or.kr 상담문의 1577-7770 ☎ 063-620-2032